
늘 친교를 살아가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10주간

제10주간: 늘 친교를 살아가기 들어가는 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이며...”(22,13)라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썩과 시작”(교회헌장 ‘인류의 빛’, 5항)입니다. 차갑게 식은 몸에 다시 온기가 돌고 예수님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라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실 뿐만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입니다.”(골로 1,15,18)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세례 받은 이는 모두, 지금 성부 오른편에 앉아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시작한 인간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골로 1,13)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자렛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본모습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1바이올린이 ‘라’ 음을 냅니다. 그러면 모든 악기가 그 음에 맞추지요. 호른, 오보에 그리고 팀파니까지. 바이올린은 모든 연주자가 그 음을 자기 귀와 악기에 담을 때까지 계속 그 소리를 냅니다.

인류는 오케스트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라’ 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이 그 ‘라’ 음이고 우리는 모두 그 음을 우리 귀와 삶에 담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그분의 삶으로 거듭 돌아갑니다. 그분의 생각과 갈망, 그분이 하신 일들과 겪으신 일들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표준음 ‘라’로 삼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듯 우리 모두 그분을 삶과 가슴속에 모실 때까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덕분에 어떻게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삶과 죽음은, 육신을 입고 다시 일어나시어 신적인 인간 생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 생명이 부활

한 육신 생명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설교를 들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2코린 5,14-15)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되살아나신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교회는 언제나 여겨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가톨릭 교회 교리서, 634항) 증언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삶이 순례이며 소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이 찬란한 행성에서 격동하는 민주주의와 창의력이 폭발하는 기술 세계의 경이로움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우리의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현세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드릴 만한 내공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운명도 받아들입니다. 육신을 지닌 채로 지고의 행복과 충만을 누릴 것을 고대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히스 입자의 원리를 알지 못하듯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미 시동을 걸었고, 그분은 마침도 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마지막 빅뱅의 때를 알리는 순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 도움말

어느 위대한 기도 스승이 기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한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친밀함이 없이는 기도 안에서 우리 주 하느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과 사랑에 빠져 놓고서 마치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면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다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덜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원하고 다른 모든 것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원하게 됩니다.

기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또 있어요. 감정 기복을 어떻게 다루는지요?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들 감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는 때가 있고, 완전히 홀로 남은 듯한 때가 있지요. 기도가 우리 삶을 관통할 때에는 이런 흔들림이 어떻게 생각되니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에 영적인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단지 심리학 이름 말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로'와 '실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일 여기에 유념해 보세요.

먼저, '위로'를 살펴볼까요? 일이 잘될 때에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아보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항상 그분께 충실하기를 바라고 희망하며 그것을 의식합니다. 악을 행할 생각은 근처에 일씬도 못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든 집에서 하는 기도이든 기도하러

갈 때에는 내 상태를 알고 있고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럼, '실망'은 뭘까요? 모든 것이 암울할 때에, 우리는 '우울하다, 의기소침해졌다'고 하지 않지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절망과 실망 상태'입니다. 분명히 우울 상태의 감정과 사고방식, 행동 방식이 실망 때와 비슷합니다. 게으르고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도 흥이 나지 않습니다. 일이나 기도, 심지어 놀이에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울함'은 모두 나에 대한 것이예요. '실망'은 나와 하느님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겁니다. 우울함은 약이 필요하겠지만, 실망에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실망에 떨어지면,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는지 묻게 됩니다. 만일 양심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실망은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죄에 따르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실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나태하거나 건성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묻게 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에 떨어진 것임을 알고 뉘우치고 열심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제자는 때로 주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위로를 거두셨음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성 이나 시오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해서이지, 기분 좋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는 햇살이나 비와 같은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위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유롭고 번창하는 사회이기를 바라시듯 말이죠. 그러려면 자유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를 지키는 수련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부활 메시지는 하느님의 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며 당신이 그곳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 N.T. 라이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벌써 10주차에 이르렀고 지난 주는 쉽지 않았어요. 성 바오로가 말하는 ‘육’이 영적인 수련에서 무관심과 나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위대한 신비가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적고 있으니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결심과 관대함을 새롭게 다짐하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것을 잊지 마세요.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사도들과 어머니와 함께 있고자 하셨는데,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토마스로 있는데, 곧장 그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토마스가 몸을 만져 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20,26-29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단상

의심을 버리고

인도 뭍바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토마스 사도를 '의심 많은 토마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첸나이(마드라스) 높은 언덕 위의 작은 경당에 그의 유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만지게 하고는 온전히 동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그는 인도에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한 듯합니다.

토마스야말로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사도일 겁니다. 오늘날 육신 부활의 믿음이 심각하게 시험을 받고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중에 이 계시를 별로 듣지 못합니다. 강론 때에 육신의 부활을 다루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신학자가 한 대답은 "그럼요, 부활절에 하죠."였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근육이나 정교한 뇌세포의 활동과 같은 신체 작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죠. 내전에서 중계되는 유혈 사태를 보고, 자살 폭탄으로 여기저기 시신이 흩어진 모습을 칼라로 봅니다.

성 토마스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먹을 것이 좀 있냐고 묻더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한 적이 없을 테니까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것도 당연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 주시도록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부활의 삶을 진정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믿음은 선물,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알아 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나라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하느님을 우러르고 우리 믿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도 육신 부활을 믿을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사 끝에 하는 인사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메모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다. 사람들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낚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 생활을 지상에 이식하려는 프로젝트이다. - N.T. 라이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기도하는 동안 기도 장소에 향초를 켜 보세요.
2. 이번 주간예: 당신 삶에서 친교,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숙고하세요.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 성찰해 보고,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망연자실 왜 그토록 놀랐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못 알아보느군요. 그때 예수님은 구원사를 기꺼이 풀이해 주시고 두 제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타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함께 묵어가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 나누실 때 당신임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4,13-31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단상

영적인 우정과 동지에

새 미사전례서에서 사제가 코린토 후서의 한 문장으로(13,13) 우리를 맞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기서 ‘친교’는 그리스어 ‘코이노니아 koinonia’의 번역인데 원래 ‘사물을 나누어 갖다(공유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통 희랍인들은 코이네를 썼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언어라는 뜻이었죠. 언어를 공유하면 생각과 가치관, 관점, 신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친밀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는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 신념,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코린 1,7; 9,13 참조) 성 바오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만났을 때 이런 공유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비통함과 낙심을 예수님과 나누었고, 예수님은 기쁨과 당신의 이해를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도)

이 코이노니아, 이 친교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

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이 기도한 지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다른 믿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왔음을 이미 알 것입니다. 성경도 믿는 이들의 믿음과 열성으로 기록되고, 교회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영적 통찰과 은총을 풍요롭게 나누는 경험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영성 생활은 고독한 여정이 아닌 거죠. 홀로 떠나는 산행이 아닙니다. 영성 생활은 하나의 순례이며, 공동의 목적을 향한 공동의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성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안으로 데려가실 때 이루어 집니다.

그러는 동안 순례 중인 우리는 동료 순례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미사에서는 주례사제가 하는 말을 들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생활에서 누가 “여러분 모두”인지 곰곰이 성찰해 보세요.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다른 모든 인간 철학과 종교적 사유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놓인 희망적 사고에 불과할 것이다.
- 존 맥아더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지금쯤이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정신 수렴은 집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이번 주간에: 본당 생활과 거기에서 당신의 역할을 성찰해 보세요. 성숙한 제자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본당이 잘되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경의 사건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기도하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4,13-31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

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나의 영적 여정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과 함께하는 순례라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생각과 신념을와 함께 나눈다.

신앙을 나누는 친구들로를 꼽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와 함께 걸어 주시길 청하는 것은 때이다.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단지 반짝이는 것보다 빛을 비추는 것이 낫고, 단지 관상하는 것보다 관상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낫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이번 주는 일상과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전능하신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2. 이번 주간에: 지금 성당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 초대 교황님이 '최초의 회칙'에 쓴 것을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1베트 4,12)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 시대에 세관장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상은 오늘날 마약왕이나 갱단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캐오를 부르시고 그 죄인의 집에 묵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키 작은 자캐오가 큰일을 합니다. 그동안 거둔 것을 관대하게 보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9,1-10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저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단상

관대하게 무엇을 내주는가?

테살로니카 공동체의 교우들은 다른 교회들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힘이 닿는 이상으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그들의 헌금이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코린토 교우들에게 말합니다.(2코린 8,3,5) 당신도 이 피정을 이렇게 시작했지요. 자신을 주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성 바오로는 코린토 교우들에게 관대함에 서 특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8,7) 이 피정에 참여하는 우리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사람도 많은 세계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정보와 활동, 종교,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불만을 표현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베드로 성인이 말한 것을 적

용해야 합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 ‘기부’라고 할 때 우리는 99% 금전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것은 돈과 무관합니다. 그리스도 신앙과 이 신앙을 깊게 해 줄 풍부한 교육과 자료들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특별한 은사라면 가르치는 일이나 독서, 간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조직해 내거나 회의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당신 지역 성당에 좋은 리더십이 없다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수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관대하지 못해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메모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교회가 육신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면서 항상 놀란다. 교회는 영혼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고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어 되살아난다고 한다.

— 플래너리 오코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정신을 모아' 보세요. 정신을 수렴하는 것은 것은 관심을 끌어모으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던 데에서 모아 온다는 거지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분명 부유하고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3. 마음을 끄는 성경 대목에 유의하세요. 아니면 되풀이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세관장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인상은 오늘날 마약왕이나 갱단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캐오를 부르시고 그 죄인의 집에 묵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키 작은 자캐오가 큰일을 합니다. 그동안 거둔 것을 관대하게 보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9,1-10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주님께서 나를 당신 집으로 부르시고, 자캐오에게 하듯이 나를 친구로 대했음을 의식한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들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나는 관대함이란 이라고 정의한다.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안에서 새로운 관대함을 발견한다.
나 자신의 관대함을 바라보며 나는 에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에게 관대해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나는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캐오의 느낌이 리라고 상상해 본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내 느낌은 하다.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어리숙하거나 사악한 소수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삶이 법정이나 신문 보도로 마감되곤 한다. 그러나 훌륭한 일을 해낸 수십 수백 수천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종종 자기 공동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 N.T. 라이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전에 가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2. 이번 주간에: 가족과 친척, 동료 그룹 등 당신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필요하다면 다시 연결하거나 원만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관계를 더 깊게 해 보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눈먼 이가 외치고 또 외친 끝에 예수님이 그를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분명 눈먼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0,46-52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단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간 존재의 위대한 서사가 하나님 백성을 통해 아름다운 전환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을 알고 거룩히 섬기는 백성”으로 하시기 (교회현장 「인류의 빛」, 9항 참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오직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사람person’이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사이에 있는 세상의 죄를 공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친교로써 죄로부터의 구원을 공유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로 위에 인용한 공의회 문헌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음을 지적합니다. 이 계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당신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으로 향하는 길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1항)

우리는 이 서사의 살아 있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신 백성”,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교회현장 「인류의 빛」, 9항) 하나가 된 백성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다른 모든 종교, 문화, 정치, 인종 집단과 우리를 구분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이 백성의 일원이 되려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 3,5) 그렇게 하면 이 백성에 속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깊은 품위와 불타는 자유를 주심을 점점 더 인식할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성숙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법자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종류를 막론하고, 신적인 사랑의 불로 모든 법에 일관하는 새로운 계명을 따릅니다.

당신은 여러 주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마태 5,13 참조)이라는 진리에 가슴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마련된 운명임을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결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은 그리스도에 의해 친교에 들게 된 다른 모든 이의 운명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시어 세말에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현장 「인류의 빛」, 9.2항 참조)

우리는 지구의 회전을 멈추거나 우리를 당기는 중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메모

늘 친교를 살아가기

청하는 은총

일상에서 가족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이미 소멸하고 있는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라.
지금 시간이 밤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아침이 되었다.

- G.K. 체스터튼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실망 상태에 있다면—흥미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기가 꺾였다면—자신에 대해 온화하고 인내심을 가지도록 마음을 쓰세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살피고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하세요.
교정할 수 없는 것이면 잘 참고 자신을 온유하게 대하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당신의 본당과 공동체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눈먼 이가 외치고 또 외친 끝에 예수님이 그를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낮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0,46-52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겹옷을 벗어 던지고 별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지금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이다.

나는을 더 잘 보고 싶다

예수님이 바르티매오에게 물으신 것처럼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대답은 이다.

때로 어떤 현실들 때문에 교회에 속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나는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해야 한다.

표지석

-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인류의 새로운 운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 예수님의 인간적 체험으로 인해 인간적 체험은 신적 품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 위로는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 실망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고, 거의 희망하지 않으며, 그다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 실망은 대개 보통은 죄스러운 생활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 우리의 코이노니아 즉 친교는 각 제자들의 특별한 은사와 은총을 필요로 하며 그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에게 데려가서 우리를 거룩한 친교 안에서 당신의 신비체로 만듭니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